

웹을 기초로 한 실무 영어 교육*

김 대 빈
(서원대학교)

Kim, Dae-Bin. 2001. **Web-based Education for Practical Business English**.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 227-242. It is noted that although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of web-based English education (hereafter referred to as WBEE) might not meet the criteria some educators have set for themselves in the field, students certainly seem to prefer studying in a web-based and computer-assisted learning environment. This kind of demand is fueling the drive to develop more suitable variations of WBEE. In order for WBEE to work out, a teacher should be a multifunctional type of instructor handling responsibilities such as the role of scriptwriter to create text, act as technician for the sound mixing and recording, preside over online chat rooms and discussion boards, and finally, as webmaster to maintain the site and supervise all academic/clerical work related to the cours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WBEE be accompanied by a small personnel to divide the labor and lessen the burden on the actual teacher. Finally, it is noted that the traditional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 may no longer be sustainable since WBEE does not provide the face-to-face style of class discussion and office hours in its current form. Until the technology is fully developed to compensate for these kinds of differences, it is an immediate challenge to provide other more compelling reasons for students to participate in WBEE.

1. 들어가기

현대의 컴퓨터의 역할은 사용자 혹은 학습자가 인터넷(Internet)이나 시디롬(CD-ROM)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고 듣는 수동적, 피상적 도구(Passive and Sketchy Material)로서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논평하신 세 분의 익명 논평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편, 이 논문은 2000년 서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으며, 웹을 기초로 한 수업은 원글리쉬 연구소의 기술적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정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미디어를 상호 연계, 결합하는 포괄적, 완성적 도구(Comprehensive and Integrative Material)로서의 기능도 겸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학습(CALL: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이 최대의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커리큘럼도 위의 두 가지 도구의 측면을 기초로 기획,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서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실무영어(Business English) 수업을 인터넷과 컴퓨터의 멀티미디어(Multi-media)의 기능을 이용한 원격 교육(Long Distance Education)으로 시행한 실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웹을 기반으로 한 원격 수업에 있어서 보조 요원의 지원 없이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에 나타나는 교수의 교육적, 기능적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고 있다.

4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실무영어(3학점, 3시간, 영문과 전공선택)는 4학년 1학기에 개설되는 취업영어(3학점, 3시간, 영문과 전공선택)의 후속과목으로서,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이 약 60%정도 되는 취업영어에 비해, 완전한 무교실 온라인 수업(중간/기말고사 제외)인 본격적인 원격수업이다.

2. 웹을 기초로 한 원격 강의

2.1. 온라인 화상 수업

2.1.1. 기본 운영 시스템

원활한 온라인 원격 수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였다.

(1) 기본 하드웨어

-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후지쯔 Pentium II 333, 화면 13.3", 메모리 64MB RAM (수업 중간에 160MB로 확장)
- 전자 마우스 패드 및 펜: WACOM Tablet System (Tablet과 Intuos 펜)
- 고성능 마이크: HITEC IE 420

온라인 원격 강의의 주 도구로서의 컴퓨터는 주 3시간의 적지 않은 시간의 수업 준비를 위해 기동성이 최대로 강조되었다. 스크립터(방송 원고 작성자)가 없고, 방송 녹음의 경험이 없는 교수가 주 3시간의 수업을 (원어로) 녹음하는 것은 타 수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필자는 기동성을 높여 작업의 양을 배가시킬 수 있는 노트북 컴퓨터를 선택하였고, 대부분의 강의 녹음은 일과 시간 외, 즉, 저녁 혹은 주말에 그리고 한 주 내내 이루어졌다.

교수 강의의 대부분은 교수의 육성 녹음과 동시에 전자 칠판을 이용한 텍스트 설명과 판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강의 도중 정확한 지점에 필요한 설명과 선 또는 도형을 그릴 수 있는 전자 마우스와 펜이 반드시 필요하다.

온라인 원격 강의에서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를 담는 그래픽, 녹음 등의 강의 외적인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녹음은 온라인 원격 강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필자는 온라인 원격 강의를 위하여 스튜디오가 아닌 연구실을 녹음 장소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강의와 관련된 자료(교재 및 프린트물)들을 강의 장소 주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녹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과 시간외 중 최대로 소음이 차단되는 늦은 시간을 이용하였다.

(2) 기본 소프트웨어

- OS: Window 98
- 워드프로세싱: 한글 97,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 원격교육 프로그램: GVA System (영산정보통신(주))
GVA 편집기(Editor)와 강의용 GVA: 웹을 기반으로 한 원격 교육 시스템으로 육성강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칠판 등의 툴을 제공하고 있다.
- 사운드 조절 및 운영 장치: Window Media Player
(마이크로소프트), WinAMP(널소프트): Windows OS 환경에서 MP3 파일을 재생하는 플레이어

온라인 원격 강의를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GVA 프로

그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GVA 시스템은 수업 텍스트와 음성 강의가 전자 칠판의 도구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가상의 공간(Internet)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교수는 GVA 편집기(Editor)를 통하여 워드로 준비된 텍스트를 GVA 환경에 맞도록 재편집하고 또 강의의 외적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업에 필요한 그래픽을 넣는다. 강의용 GVA에서는 “음성 상태창”을 통하여 음성을 조절하고 텍스트가 나타난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강의 녹음을 한다. 한편, 강의의 생동감을 주는 원어민의 대화 녹음 및 시그널 뮤직은 “Window Media Player”와 “WinAmp”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GVA 시스템으로 녹음된 방대한 양의 강의 파일은 파일전송 프로그램으로 서버 운용자에게 전송되었다.

2.1.2. 온라인 원격 수업

온라인 원격 수업의 3분의 2는 교수의 일반 강의 형식이다. 이 형식은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완전(full) 무교실 원격 수업이다. 하지만, 이 수업이 온라인 상에서 학생들에게 강의의 형태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강의 텍스트 제작

학생들과 활발한 토의가 있는 수업에서의 텍스트의 활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수업(교실 수업)에서는, 토의가 있는 텍스트를 통하여 수업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를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 수업 참여를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교수는 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수업을 위한 강의 텍스트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의 수업 시선을 최대한 집중, 고정시키기 위하여 강의 내용 전체를 포함한 텍스트가 필수적이며, 아울러, 텍스트의 프리뷰, 요약, 비고, 그래픽 등의 요소들도 간결(Conciseness)하고, 명확(Clarity)하게 그리고 효과적(Effectiveness)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GVA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강의 텍스트의 기본 골격은 기존의

전자 출판화된 텍스트(*Savvy Business Talk*, 원글리쉬닷컴(주))를 이용하였고, 제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a. 워드(MS Word 혹은 한글)에서 작성된 파일을 HTML(*.htm) 파일 형식으로 저장한다.
- b. 저장된 파일을 “GVA 편집기”에서 불러 들여 수업 목적에 맞게 재편집한다.
 - 텍스트 분할(페이지 분할), 폰트 사이즈 조정, 색 넣기 등
- c. 강의 화면에 필요한 그래픽을 넣는다.
 - 사진, 학교 명, 학과 명, 강좌 명, 교수 이름 등
- d. 편집된 파일을 “GVA 편집기”에서 저장한다.
- e. 저장된 파일을 다시 “GVA 파일 만들기”를 통하여 GVA 강의 용 파일로 변환시킨다.
 - 변환된 파일은 “GVA 저자용”에 있는 GVA 강의 디렉토리에 위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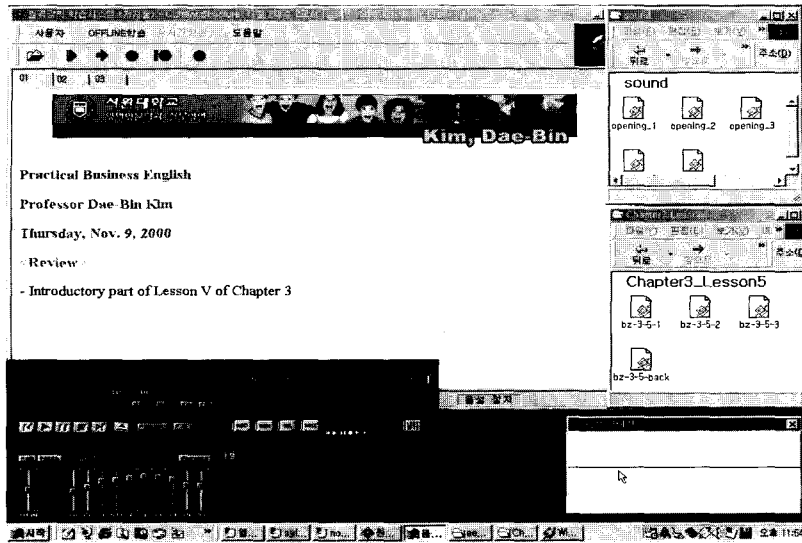
(2) 녹음 준비

워드에서 처음 제작된 강의 텍스트가 GVA 파일로 변환된 후에는, “GVA 저자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수의 육성 강의와 전자 칠판, 그리고 원어민의 생생한 대화가 가미된 인터랙티브한 강의 도구가 된다.

“GVA 저자용” 프로그램에서의 녹음과 강의 내용 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그림 1 참조)

- a. “GVA 저자용” 프로그램에 저장된 GVA 파일을 불러온다.
- b. “원격강의 학습 시스템(저자용)” 화면이 나오면 녹음 상태의 최적성을 유지하지 위하여 “음성상태 보기” 창을 활성화 시킨다.
- c. 녹음에 필요한 각종 사운드 파일(시그널뮤직, 원어민 녹음 등)을 활성화 시켜 사운드 믹싱 작업을 준비한다.
- d. 사운드 작업의 진척을 확인하기 위하여 Window Media Player, WinAmp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킨다.

<그림 1>



(3) 강의

a. Breaking the Ice

일반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수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업에 대한 의지, 즉, 수업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감정을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외모, 몸 동작 등)으로 표현하여 교수, 학생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며 수업을 시작할 수가 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교수의 육성만이 유일한 감정의 표현 도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편안함과 열린 마음을 갖게 해 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Breaking the Ice”의 방법이 필요하다.

b. 교수 단독 혹은 원어민과의 공동 강의

실무영어 원격 강의는 원래 교수 단독으로 진행되도록 고안되었다. 하지만 학기 중반에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짐을 간파한 후에는, 영어 원어민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원어민은 “Breaking the Ice” 과정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하고, 또 원어민만이 가지고 있는 직관력을 통하여 텍스트의 의미상의 해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그 역할이 두드러졌다.

c. 전자 칠판과 원어민 녹음 파일

교수의 판서는 전자 칠판에서 다양한 도구(밑줄, 그림, 색 변환, 도형 등)를 통하여 표현된다. 교수는 전자 칠판인 텍스트에 직접 판서를 할 수도 있고, 페이지를 달리한 화이트보드, 즉, 빈 텍스트에 판서를 할 수도 있다. 교수의 빈번하고 성의 있는 판서는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데 중요하다. 또, MP3 파일로 된 적절한 원어민의 생생한 드라마 녹음은 수업의 지루함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필요한 원어민의 드라마 녹음을 다운받아 저장하여, MP3 플레이어 등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다.

2.2. 온라인 디스커션 수업

온라인 원격 수업의 3분의 1은 학생과 교수, 혹은 학생들간의 그룹 디스커션, 즉 채팅 형식이다. 이 형식은 학생들이 장소에는 구애를 받지 않으나 시간에 제한을 받는 부분(partial) 원격 수업이다.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과목을 위하여 개설해 놓은 채팅방에 들어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토의를 한다. 교수는 관찰자의 역할 또는 토론자로서 참여를 할 수 있으며 원만한 토의를 위해서 조정자의 역할도 하게 된다.

2.2.1. Breaking the Ice

채팅 형식의 그룹 디스커션 수업에서도 교수와 학생들 서로간의 친근감과 관심을 표현할 방법이 타이핑으로만 제한되므로, 오프라인 디스커션 수업에 비해 “Breaking the Ice”의 의미가 한층 더 해진다. 교수는 학생과의 채팅 기회를 통하여 학생들의 사고와 문화를 색다르게 접할 수 있고, 학생들은 교수 연구실, 혹은 교실이 아닌 곳에서 자기들의 대화 방식으로 교수를 접할 수 있어 편한 마음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채팅으로 대화하던 학생이 평소(수업시간 혹은 교수와의 면담시간)와 너무 다른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어서 채팅 수업의 향후 성공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하였다. (3.1.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

2.2.2. 그룹 디스커션

학생들은 1주일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원격 수업 홈페이지

지에 개설된 “채팅” 프로그램에 출석해야 한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원격 수업의 장점에 조금은 손상이 가지만,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와 함께 수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이다.

(1) 소수의 디스커션 그룹

실무영어 원격수업의 학생 정원은 총 29명이다. 29명의 학생은 동시에 그룹 디스커션을 하기에 채팅 프로그램 자체도 감당하지 못할 수 일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학습의 효과를 나타내기에도 너무 많은 숫자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드라마 역할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4-5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2) 디스커션

소수의 그룹으로 나뉘어진 학생들은 사전에 주어진 토픽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생들은 자기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주어진 캐릭터의 이름으로 다른 학생들과 디스커션을 하고 교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찰자의 역할을 한다.

(3) 그룹 디스커션 기록 보관

학생들의 디스커션 내용에 대한 기록은 후에 공정한 평가를 내리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학생들이 주제를 이해했는지, 혹은 주제를 벗어나는지를 판가름하게 되고, 또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영작문 표현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2.3. 오프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은 강좌 소개를 위한 수업 첫 날과 시험을 위한 중간 고사 그리고 기말 고사로 한정된다.

2.3.1. 오리엔테이션

실무영어 원격수업은 원칙적으로 무교실 수업이지만, 과목의 특성상 학기 첫 주는 오프라인 수업, 즉, 교실 수업을 한다.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에 원격 수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게 된다.

- 학점을 받기 위한 필요 조건
- 원격강의 홈페이지 들어가기와 사용법 배우기
- 등록하기: 신상기록 작성과 아이디 만들기

2.3.2.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학생들은 그 동안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교수와의 인터뷰와 그룹 디스커션을 통하여 점점 받는다. 한편, 교수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프로그램에 대한 건의 사항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2.4. 수업 외 학생관리 업무

온·오프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의 관리 업무도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학생들의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과 또 프로그램 완성도의 결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정확한 출석 체크는 원격수업의 대외 신뢰도와 성공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림 2 참조)

<그림 2>

번호	이름	학과	학번	결핵 시작일	총수업 일수	수업참여 일수	강의 마감일	총 학습 시간
1	이주영	영어영문학과	9226206	2000/03/29	67	4	2000/11/29	0003:15:14
2	이정남	영어영문학과	9366207	2000/03/27	66	21	2000/12/27	0000:27:16
3	이규영	영어영문	9366340	2000/01/07	66	12	2000/01/07	0011:23:46
4	이정석	영어영문학과	9426203	2000/08/31	66	19	2000/11/30	0013:06:10
5	김정희	영어영문학과	9426007	2000/03/31	66	40	2000/11/30	0041:39:22
6	박주원	영어영문학과	9426014	2000/03/20	66	37	2000/11/29	0051:51:16
7	남찬환	영어영문학과	9426023	2000/03/02	66	17	2000/12/02	0017:20:07
8	이정민	영어영문학과	9426024	2000/03/29	67	19	2000/11/29	0047:08:43
9	이진희	영어영문학과	9426027	2000/03/31	66	14	2000/11/30	0006:20:19
10	정가서	영어영문학과	9426034	2000/03/16	66	14	2000/12/16	0013:21:07
11	김민정	산업공학과	9504301	2000/11/09	67	0	2000/02/09	0000:00:00
12	박기진	영어영문학과	9502014	2000/03/29	67	23	2000/11/29	0015:47:22
13	김한남	영어영문학과	9502021	2000/03/29	67	11	2000/11/29	0000:00:39
14	이규근	영어영문학과	9502022	2000/03/07	66	23	2000/12/07	0076:08:06
15	이정민	영어영문학과	9502022	2000/03/29	66	12	2000/12/29	0008:01:02
16	이주영	영어영문학과	9502023	2000/03/31	66	19	2000/11/30	0013:46:16
17	남찬환	영어영문	9502033	2000/03/20	66	11	2000/12/20	0016:25:08
18	이정석	영어영문학과	9502033	2000/03/05	66	19	2000/12/05	0028:00:50
19	이정민	영어영문학과	9502044	2000/03/31	66	13	2000/11/30	0010:12:27
20	김가서	영어영문학과	9762001	2000/03/31	66	17	2000/11/30	0005:52:51
21	남찬환	영어영문학과	9762015	2000/03/26	66	14	2000/12/26	0013:48:34
22	신찬민	영어영문학과	9762026	2000/03/27	66	0	2000/12/27	0000:00:00
23	신찬민	영어영문	9762026	2000/03/27	66	2	2000/12/27	0000:58:24

3. 설문조사 결과 및 논의

3.1. 설문조사 결과

3.1.1. 엇갈린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내용보다는 학습 방법이 중요

아래 질문 1은 학생들의 실무영어 원격강의 교과에 대한 학습 동기 유발이 “실무영어” 교과 내용 자체로부터가 아니라 수업의 도구인 웹을 기초로 한 온라인 원격강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실무영어 내용 그 자체가 필요해서”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은 단지 2명(7.7%)에 불과해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변인(교수, 친구)의 권유”나, “특정 교수의 과목”은 최소한 대학 4학년에게는 중요한 학습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음을 보여 성숙한 학습 자세를 엿볼 수 있으나, 교과 내용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지 못함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웹을 기초로 원격수업 자체에 치명적 애러, 즉, 학습 효과의 저해, 심리적 장애 등의 부정적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한, 학생들은 개설되는 온라인 원격강의가 1차적인 선택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질문 1> 실무영어 원격강의를 수강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

1)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강의라서	21명	80.7%
2) 학습효과가 뛰어난 방법이어서	2명	7.7%
3) 새로운 학습방법이기 때문에 (인터넷 등)	11명	42.3%
4) 주변인(교수, 친구)의 권유로	0명	0%
5) 실무영어 내용 그 자체가 필요해서	2명	7.7%
6) 특정 교수의 과목이라서	0명	0%
7) 기타 앞으로의 수업방향이라서	1명	3.8%

3.1.2. 새로운 학습 방법도 좋지만 원어(민) 강의가 더 인상적

웹을 기초로 한 원격강의는 교수의 육성 강의와 함께 교수의 판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전자칠판, 그리고 각종 그래픽 등이 최첨단의 학습 방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원격수업

의 새로운 학습 방법도 중요하지만, 교과목의 원어 강의 혹은 원어민의 대화 청취가 원격강의 학습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질문 1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원격강의의 선택 기준, 즉,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강의”와 “새로운 학습 방법”에 원어 강의 혹은 원어민의 강의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 2> 실무영어 원격강의 수업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1) 교수(1인 혹은 2인)의 녹음된 원어 강의	11명	42.3%
2) 수업 중 교수의 판서 (밑줄, 그림, 설명 등)	1명	3.8 %
3) MP3 파일된 원어민의 대화 청취	7명	26.9%
4) 수업 외적 요소 (음악, 수업 화면 등)	4명	15.3%
5) 기타 (구체적 설명 없이 선택)	3명	11.5%

3.1.3. 채팅의 즐거움

이미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채팅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채팅이 학교에서 수업에 활용된다는 사실에 고무된 듯 하다(11명, 42%). 채팅자체가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도구로서의 의미는 상당히 미미한 반면(1명, 3.8%), 채팅이 수업 참여자간, 즉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유기적 연결에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 준다. 온라인 채팅에서 보여 준 학생들의 재기 발랄함과 순발력은 오프라인 디스커션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은 예측 못한 소득이었다.

<질문 3> 실무영어 온라인 채팅수업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1) 교수와의 온라인 상담 혹은 대화 기회	6명	23.0%
2) 온라인 상에서 학생과의 만남 및 토의	5명	19.2%
3) 첨단 학습 방법의 체험	11명	42.3%
4) 뛰어난 학습 효과	1명	3.8 %
5) 기타	3명	11.5%

3.1.4. 수업 외적인 불편과 성실도 측정의 어려움

학생들은 원격강의 수업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골고루 지적하였다. 질문에 “복수 선택 가능”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3분의 1 정도는 복수 선택을 통하여 원격강의 프로그램 자체의 불안정성, 예를 들어, “녹음 상태” 혹은 “너무 긴 강의 파일의 다운로드 시간”과 같은 수업 외적인 요소에 불편을 겪었다고 반응을 나타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웹을 기초로 한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의 성실도를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질문 4> 실무영어 원격강의 수업(GVA)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1) GVA 프로그램 자체의 불안정성	9명	34.6%
2) 너무 긴 GVA 강의파일의 다운로드 시간	8명	34.6%
3) 불규칙한 강의 녹음 상태	7명	26.8%
4) 학생들의 수업 참여(출결 등)의 성실도를 측정해야	9명	34.6%
5) 기타	1명	3.8%

3.1.5. 채팅프로그램의 불안정성과 성실도 측정의 어려움

그룹 디스커션을 위한 온라인 채팅 수업은 원격수업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의 하나다. 필자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은 최소한 한번 정도는 정상적인 수업에 방해로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은 시간과 공간에 자유로워야 할 원격수업에 적어도 시간에 자유롭지 못한 채팅 수업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29명의 학생들의 개인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교수가 빈 수업시간을 찾아 채팅 시간을 정해야만 했고, 그래도 시간이 맞지 않는 학생을 위해서는 0교시 채팅 수업을 하여야만 했다. 질문 4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온라인 채팅 또한 수업의 성실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여 원격수업의 성실도 측정은 해결되어야 과제임을 보여 주었다.

<질문 5> 실무영어 온라인 채팅수업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1) 채팅 프로그램의 불안정성	8명	30.7%
2) 그룹 디스커션 시간의 조정	10명	38.4%
3) 너무 많은 학생 수	0명	0%
4) 학생들의 디스커션의 성실도를 측정해야	7명	26.8%
5) 기타	1명	3.8%

3.1.6. 정확, 신속한 학사 관리 부담

GVA 수업과 채팅수업 외에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해야 하는 일이 완성도가 떨어져 학기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 “강의실 들어가기” 버튼을 클릭하고 강의를 수강하고 또, “종료” 버튼을 클릭하고 홈페이지를 나가야만 출석이 인정되나 학생들의 실수와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미흡해 불편을 겪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은 토픽을 포함해 많은 질문을 “Q&A”를 통하여 하면서 교수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음을 보여준다. 일부 학생(5명, 19.2%)들은 시험도 완전히 온라인 원격시험 형태로 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질문 6> 원격강의 수업을 수강함에 있어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1) 정확한 출석 확인	6명	23.0%
2) 신속한 Q&A 처리	11명	42.3%
3) 다양한 추천 사이트	2명	7.7%
4) 오프라인 시험	5명	19.2%
5) 기타 (일방적인 교수의 강의, GVA 불안정성 해결)	2명	7.7%

3.1.7. 40분 이하의 수업

96.1%(25명)의 학생들은 원격강의 수업의 집중도를 위하여, 수업 시간은 40분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수업에 필요한 사전 준비 단계에 적지 않은 시간을 소비할 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화면에 가득한 영어 원어의 수업은 집중도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고 상담시간을 통하여 보고하고 있다. 교과목의 형태에 따라, 또 교수의 강의 방법에 따라 집중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위 수업 시간은 다를 수 있다.

<질문 7> 실무영어 원격강의 수업(GVA)의 집중도를 위한 적당한 단위(1회당) 수업 시간은?

1) 50분	0명	0%
2) 45분	1명	3.8%
3) 40분	7명	26.9%
4) 35분	6명	23.0%

5) 30분 이하 12명 46.1%

3.1.8. 대체로 만족

실무영어 원격강의에 대하여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하는 듯하다. 비록, 프로그램 자체에 기술적인 문제와 채팅 수업에 대한 시간적 불편함이 있었지만 위의 설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수업 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수용 태도는 주목할 만 하다.

<질문 8> 전반적인 실무영어 원격강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1) 매우 만족	0명	0%
2) 약간 만족	9명	34.6%
3) 만족	11명	42.3%
4) 약간 불만족	5명	19.2%
5) 매우 불만족	1명	3.8%

3.2. 논의

설문지의 내용은 대학의 실무영어 수업을 웹을 통한 원격수업으로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학업 성취도를 보여 주기보다는 원격수업 자체에 대한 흥미도와 가능성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설문조사 답변의 신뢰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학기 말 마지막 수업 시간에 실시하지 않고 성적 변경기간이 지난 후에 근로 학생을 통하여 전화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대체로 성실성의껏 질문에 답변을 하였다고 보고를 받았으나, 종강을 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학생들의 바쁜 일과 가운데 실시 된 것이어서 정확성의 확보가 관건이었다. 일례로, 복수 선택이 가능한 문항과 그렇지 못한 문항에서 정확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4. 제언 및 나가기

웹을 기초로 한 원격 영어 교육은 기존의 학습 지도 방법론에서 예상치 못한 장점도 있는 반면에 기존 교육 형식의 틀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하지만, 학생들은 비록 컴퓨터 기술적 환경(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이 충분치 못한 환경에서도,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강좌에 대하여 적극적 수용의 태도를 보이고, 또 원어민 혹은 원어 수업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여내고 있어, 향후 원격 실무영어 원어 수업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웹을 기초로 한 원격수업은 교수에게 원격수업에 맞는 텍스트를 제작하는 제작자와, 녹음과 사운드 믹싱 작업을 동시에 해야 하는 기술자 혹은 진행자와, 채팅을 통한 디스커션을 진행하고 조정하는 조정자, 그리고 Q&A와 사이트 추천과 같은 수업 외적 관리를 모두 컴퓨터 환경 가운데 업무를 수행 해야 하는 수퍼맨의 등장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교수 1인이 3-5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환경에서는 쉽지 않은 수업의 형태이다.

게다가, 교수의 강의가 쉽게 외부에 유출이 될 수 있어, 수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한 번 외부에 유출된 강의는 교수의 강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용이 임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 및 조작이 될 수 있어 분쟁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사제관계의 변화이다. 교수와 학생이 교실에서 얼굴을 맞대고 토론을 하면서, 또, 캠퍼스 안팎의 생활에서 학문과 인간사회를 자연스레 논의하는 오프라인적 유·무형의 대학의 교육이 컴퓨터라는 미디어에 흡수되어 단편적, 수광적인 기형적 지식의 전달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원격수업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수업이 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온·오프라인 수업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성은. 2000. 『가상교실 만들기: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학습』. (번역, 원저자: Lynnette R. Porter).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조홍섭. 2000. 멀티미디어와 영어수업. 《영어 영문학 연구》 42.
- 최성희·전영국·정혜선. 2000. 『통신망의 교육적 활용』. 서울: 학지사.
- Brown, H. D. 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Finocchiaro, M. 1986. *English as a Second/Foreign Language: from Theory to Practice*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Heinich, R., M. Molenda, J. D. Russel, and S. Smaldino, 1998. *Instructional Media and Technologies for Learn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Kim, M.-W. ed. 1999. *Savvy Business Talk*. Seoul: Wenglish.Com, Inc.
- Wexler, D. 2000. Integrating computer technology in educational studies. *American Educational Studies Association* 31.

김대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231
서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361-742
전화: 043)299-8524
E-Mail: dbkim@seowon.ac.kr

접수일자: 2001. 4. 19.

게재결정: 2001. 5. 31.